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44)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3,11-14ㄱ

[화답송] 시편 122(121),1-2,4-5,6-7,8-9
(◎ 1 참조)

[복음 환호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복음] 마태 24,37-4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95] 별들을 지어내신 주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In those days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p to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They did not know until the flood came and carried them all away.

So will it be also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Two men will be out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Therefore, stay awake!

For you do not know on which day your Lord will come.

Be sure of this: if the master of the house had known the hour of night when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stayed awake and not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So too, you also must be prepared, for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the Son of Man will come.”

†묵상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기다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사야의 환시를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지만 끊임없는 갈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평화를 멀리하고 많은 슬픔과 불행과 함께 고통을 자아냅니다.

주님께서서는 화해를 이루시는 분, 평화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의 뜻, 곧 구원과 평화, 정의와 사랑의 길을 알려 주시러 오십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사야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하고 초대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도 똑같은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절박합니다. 육이 주는 쾌락을 따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밤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의 징표에 관심 없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거나 실천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쾌락에 젖어 살았던 홍수 이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보인 행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본능과 사악한 경향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 곧 하느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대림 시기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해야

대림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이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곧 교회 달력(전례력)으로는 대림 제1주일이 새해의 첫날이다.



바오로말 콘텐츠

대림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스페인과 갈리아 지역에서 성탄을 앞두고 참회의 기간을 가진 관습이 있었던 4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해마다 대림 시기가 거행된 것은 6세기 이후 로마 전례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대림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례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따라서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인 12월 24일까지**의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림 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은, 회개와 속죄의 시기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대림초 네 개를 마련하여 매주 하나씩 늘려 밝히는데, 이는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례 때 사제는 회개와 속죄의 뜻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다.

대림 묵상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

“깨어있음(vigilanza)과 기도는 대림시기를 위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날과 아울러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오십니다.”
(2018년 12월 3일 산타마르타의 집 아침 미사)

말씀 안에서

설마...



설마
12월 25일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설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해결해줄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24,44)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부)



CYO News

CYO BRIDGE BOWL November 23, 2019



Saechan Hong
11th grade

Bridge Bowl is a flag football activity with other Korean Christian churches around the Fairfax County. Our church participated and got 7th place out of 9 teams. Unfortunately Saint Paul Chung didn't come back with a trophy but we did come back closer with each other and also closer to our heavenly father. Even though it was nice to win at least one game, **the whole point of bridgebowl wasn't to win and take back a trophy, but to build relationships not only with god and other friends, but with other churches. Our team, played phenomenally and all of u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ach games.**

Thanks to everyone, we came back happy and proud. I'd love to thank the coaches Jonathan and Andy, the parents who came to support the church, Father Kang, and everyone else that was there. I'd love to have Bridge Bowl next year and come back with a trophy to make our church proud.

Dylan Jang
12th grade

Before Bridge Bowl had started I didn't have high expectations for our team overall because of how we only had three practices and two of which had less than ten people. Overall I didn't think this was gonna be fun and all of our games were gonna be blowouts.

But now after bridge bowl I created new bonds with others and created stronger bonds with those I already knew. Words couldn't explain how much fun I had in Bridge Bowl and the sheer excitement of winning a game by working as a team. Sadly even though this was my first and last bridgebowl the memories we created will last for eternity. Even though we only got one win to become 7th place, we won the entire tournament in my heart as God watched over us having fun.

On November 23rd, CYO students participated in Bridge Bowl which was held at Poplar Tree Park and Arrowhead Park. CYO students were able to bond with each other despite the cold weather and early start time thanks to our PTO parents who prepared warm food and snacks.

This year our Bridge Bowl team truly bonded with each other and God. We would like to thank Fr. Paik, Fr. Kang, CYO parents, Raphael members old and new for coming out to support our CYO Bridge Bowl Team.



Angela Hong
11th grade

It wasn't about winning or losing but it was about the bond that was made between fellow players on the team. I am so proud of everyone who decided to play Bridge Bowl. **As a catholic I was super blessed with an opportunity to be a part of something so much bigger than just me, but a whole team. Praying with the team and lifting each other up when one was upset or injured strengthened our bond not only with each other but also God.**

Bridge Bowl was tough this year only having limited time to practice and playing in cold weather so early in morning, but I would never take for granted the moments made with such a loyal, optimistic, and uplifting team for anything.

God truly has blessed each and everyone of us with the presence of great coaches, teachers, and players. No words can explain how thankful I am for this team it was truly something extraordinary. I wish everyone could have experienced and I hope that everyone who didn't get the chance to play this year play the next!

청년성서모임 15주년 기념 <감사의 날 말씀 잔치>



청년성서모임이 1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24일(일) 친교실에서 43명의 성서 가족들과 청년들이 모여 <감사의 날 말씀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2004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로 대답하고 5명의 그룹원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말씀의 씨앗이 15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두영 임브로시오 신부님의 시작기도와 김경민 어네스트 수녀님(뉴저지 미동북부 청년성서모임)의 축하메시지로 시작하여 15년 간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 관람과 '아버지' 울동 찬양 배우기,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또 역대 대표 봉사자들의 체험담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여인' 성화 모자이크를 완성하여 5시 파견미사에 봉헌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서모임 열매들은 창세기 46 그룹, 탈출기 22그룹, 마르코 7그룹, 요한 1그룹으로, 총 36명의 봉사자들께서 수고해주셨고 총 202명의 성서가족들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청하며, 다음에는 30주년 말씀의 잔치를 또 다같이 함께 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20대-30대 대상으로 하는 청년성서모임은 2020년 1월에 새로운 그룹원들을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조다운 아네스 703-965-2988)



사마리아 여인 모자이크 성화에 쓴 하나님 감사 편지 말씀선들

"하느님, 당신을 궁금해 하고, 의심하고, 알아가고, 결국 당신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까워질 수 있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Lord, thank you for letting me able to volunteer for you. Please keep using me on a tool to complete your kingdom."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항상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지않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당신 따라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사랑에 제 맘 벅차고 설레입니다."

"하느님! 저희 청년성서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의 촛불인 저희들이 많이 모여서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제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항상 절 사랑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항상 평평대로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행복한 자녀가 되어 세상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세요."

"Please guide me, help me, so I can better serve you, and spread your word, love to others!"

"항상 저를 잊지 않으시고 아낌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부족한 제 안에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서 주간 행사

성서관련 도서 홍보·시청각 통신성서 교육과정 소개



성서 주간(11월 24일-11월 30일)을 맞아 성 바오로딸 수도회에서 성서 관련 도서를 전시, 판매해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한 바오로딸 수도회 통신 성서교육원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에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많은 신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을 되새기며 ‘성경,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성경공부를 해야 하는가?’, ‘성경공부의 올바른 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총 6년 과정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입문과정 2년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공관복음, 요한계 문헌, 바오로 서간, 사도행전, 기타 서간 등 4년의 중급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이 부여된다. 1년에 2과목씩 8개월 동안 통신으로 교재와 과제장을 받아보고 매달 20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방식이다. 매 학기가 끝나면 자체 연수회를 통해서 한 학기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단체 등록을 통해서 신청자들끼리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과정 이수자 중 봉사자를 선정하여 아래학년의 멘토 역할을 부여하여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에 보다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 요약 안내서와 신청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 수강료 : 교재비 포함 1년 \$184

○ 요한회 소식



요한회(50대 신자들의 모임)는 지난 11월 2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날 모임은 백인현 주임 신부님의 강복과 회원이 정성껏 마련한 떡국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활동보고와 회계보고, 차기 회장 선출, 회칙 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활동사항인 노인 아파트 방문과 6개 단체 체육대회 및 경조금 지급 방식 등을 검토했다.

2020년 차기 회장으로 장문환 분도 형제가 선출되었으며, 오는 12월 22일에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림 특강

- 1 "로고스와 스토리를 통한 그리스도와 대림의 이해"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1시 - 3:30
 - 강사 :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터 한인성당 주임신부)
- 2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1시 - 3시
 - 강사 :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 (조지 워싱턴대 박사과정)

축하드립니다!

강두영 암브로시오 보좌신부님의 사제서품 기념(12월 5일)과 성 암브로시오 영명 축일(12월 7일)을 맞으시는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12 CYO(고등부) Winter Retreat

- 일시 : 12월 13일(금) 오후 4:30 - 12월 15일(일) 오후 2:30
- 장소 : Brethren Woods (Keezletown, VA)
- 등록 : 교실 또는 사무실 (등록비 \$60)
- 문의 : 홍 수산나 (703)955-1830

13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 과정 신청

- 성바오로딸 수도회 성서 교육 과정 (6년 과정)
- 접수 : 사무실, 교육부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4 꼬미시옹 월례회의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1시 (B-3,4)

15 ME 주최 2019년 성탄 파티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12시- 5시
- 장소 : Westfield Golf Club (Clifton, VA)
- 참가비 : 1인 \$55(Steak/Fish선택, 와인 포함)
- 등록 : 12월 1일(일)까지 미사 후 친교실
- 분당 교우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 문의 : 김창호 요안 비안네 (703)830-5373

16 다민족 페스티벌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6시-9시
- 장소 : O'Connell High School (입장료 무료)
- 다양한 문화음식과 무용, 공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성당 사무실 (703)968-3010

17 청년들을 위한 한글학교 개강

- 일시 : 매 주일 오전 11:40 미사 후 (하상관 #107)
- 담당 교사 : 송정아 마리아 (703)505-6974

18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제대회에서 성탄 제대 꽃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 신청 : 황 줄리아 제대회장 (703)628-5262

2차 헌금

크리스마스 자선(Catholic Christmas Collec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다음 주일(12월 7, 8일)에 있습니다. 주부에 삽입된 봉투를 사용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2월에는 그동안 밀린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 12월 5일(목) 오후 5:00-6:00
- 12월 6일(금) 저녁 8:00-9:00
- 12월 8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 예로니모 성인과 가타리나 성녀 - 윤원진 비안네 신부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12월 4일(수) 오전 6:15-6:45
- 12월 7일(토) 오전 8시-8:30



•故 차동엽신부님의 강의 '그리스도인의 희망' (3부)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1월 24일(연중 제34주일)

주일헌금	\$8,482.70
교무금	\$10,600.00
교무금(크레딧카드)	\$6,110.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2,639.00
합계	\$27,831.7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란시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민(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승(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가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타리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이영민 (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렐),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치아), 이솔(루치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백철(프란치스코), 주기훈(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바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바시오), 제임스 리(요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2월 1일(일)	대림 제1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오후 1시, B-1), 전신자 대림특강(오후 1시, 성당), 레지오 연차 친목회(오후 3:30, 친교실), 하상 성인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오전 11:30, 친교실), 주일학교 휴강
2일(월)	대림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3일(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4일(수)	대림 제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5일(목)	대림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6일(금)	대림 제1주간	병자 영성체, 하상 성인학교 종강식(오전 11:50), 평일미사/성체강복(오후 7:30), 회장단 회의(오후 8:30)
7일(토)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첫 토요일(오후 6:15)
12월 8일(일)	대림 제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옹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전신자 대림특강(오후 1시, 성당),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베드로회(오후 1시, A-1)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6시까지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